

# 8년째 장애인 인식 교육... 곳곳에서 러브콜

## 장애바로알기센터 출범 1년

4월이 일년 중 가장 바쁜 곳이 있다. 사람들에게 장애바로알기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한국장애바로알기센터(이사장 율호)다. 아동, 학생, 성인을 대상으로 장애인 관련 교육을 진행하는 '출장전문' 교육기관이다.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교육을 도모하고자 설립됐다.

매년 4월 20일이 장애인의 날이다 보니 도처에서 교육요청이 늘어난다. 이미 4월 일정은 몇 개월 전에 마감됐다. 연말까지 스케줄이 잡혀있을 정도다. 교육 요청 단체를 직접 방문해 교육을 진행하기도 하고 희망단체가 있을 시 승가원 강당에서도 정기 교육을 한다.



장애바로알기센터 복지사가 고등학생들에게 장애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 대상별 맞춤 교육으로 인기

장애바로알기센터는 장애인들의 숨겨진 승가원 법원부설기관으로 2007년부터 장애아동교육을 시행해오다 지난해 정식 출범하며 호응을 얻고 있다.

처음에는 직접 어린이집과 학교를 방문, 문을 두드려야했지만 센터가 출범하고 홈페이지가 마련되면서 홍보가 쉬워졌다. 교육을 경험해 본 단체사이에서 입소문도 많이 났다. 작년 교육을 진행했던 곳에서 올해 또 다시 교육신청이 들어오기도 한다. 이제는 교육일자가 겹치지 않도록 배분해야 할 정도다. 지난해에는 어린이집 40곳, 초중고교 84곳을 비롯 총 124군데서 장애인

### 지난해 어린이집 등 총 124곳 교육 이룬·영상 교육으로 장애인식 개선 체험교육은 장애인 이해에 큰 효과

교육을 진행했다.

교육내용은 장애인식개선에 초점을 맞췄다. 장애인, 종류, 장애 극복사례 등을 소개하며 장애인과 비장애의 경계를 허문다. 대상별 맞춤 교육도 진행한다. 어린이를 대상으로는 직접 준비한 인형극과 시청각교육이, 초중고 일반인들 대상으로는 이론교육과 영상교육이 병행된다.

### 장애공감 후 학생들 이해폭 넓어져

교육내용이 매년 같겠지 생각하면 오산이다. 화제가 된 영화, 드라마 속 장애아를 그때 그때 모아 교육자료로 활용하며 학생들의 집중도를 높인다. 휠체어, 지팡이, 점자, 한손색종이접기 등의 체험진행은 두 그룹이 공통으로 진행한다.

장애체험을 하고난 학생들의 변화는 실감난다. 어린이집 아이들은 길에서 도움이 필요한 친구를 만나면 도와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으며 장애를 가진 친구를 놀리지 않겠다고 다짐한다. 같은 반 장애인친구가 겪었을 어려움을 체험하고 팬스레 미안해졌다고 이야기하는 학생도 있다.

장애바로알기센터 원하정 팀장은 장애인 교육은 "마음으로 이해하는 교육"이라고 이야기한다.

### 교육콘텐츠 개발·전문강사 양성 계획도

그러나 서너시간 교육으로 아이들의 변화가 지속되리라고 기대하는 건 무리. 일회성 교육의 한계를 매우기 위해 올해는 홈페이지 개편을 할 생각이다. 교육과정 중에 궁금했던 점을 해결할 코너를 만들어, 학생들이 교육 후에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같은 반 급우로 자주 접할 수 있는 자폐·지적장애 학생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기존 시각·지적장애에 중점을 두고 진행했던 교육내용에도 변화를 주기로 했다.

원하정 팀장은 장애인식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장애에 대한 이해가 없기에 장애인에게 어떻게 다가가고 도와줄 수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장애체험을 통해 평소 장애인들이 어떤 어려움을 경험하는지 이해하고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주변을 돌아보게 된다"고 이야기한다.

중장기계획이긴 하지만 장애바로알기센터는 꾸준한 장애인교육을 통해 전문화된 장애인연구소로 외연을 넓혀나갈 계획이다. 대상자별 교육 프로그램을 더욱 체계화시키고 장애인교육 전문강사 육성과 다양한 교육 콘텐츠 개발에도 힘을 쏟을 예정이다.

배현진 기자 linus@hyunbul.com

## 수불 스님, 동행에 1억7천만원 쾌척

4월 8일, 동국대 병원·군법당 신증축 기금 전달

부산 범어사 주지 수불 스님이 동국대 일산병원과 군법당 신증축 기금으로 1억7천만원을 쾌척했다.

수불 스님은 4월 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아름다운동행(이사장 자승)에 기부금을 전달했다. 기금은 향후 동국대 일산병원 법당 증축(5천만원)과 육군3사단(1억원), 육군 17사단 100연대(2천만원) 법당 신축에 사용된다.

자승 스님은 "기부문화와 나눔결사의 최선봉에서 활동해오신 스님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곳을 위해 꾸준히 나눔 실천을 해달라"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수불 스님은 "종단사업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 기꺼이 도울 생각"이라며 "아름다운동행에 후원이 많아질수록 정부, 기업과의 공조도 쉬워져 나눔사업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이번에 처음 알게됐다. 종단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후원에 힘쓰겠다"고 답했다.

전달식에는 사서실장 심경 스님과 아름다운동행 사무총장 자광 스님이 참석했다. 배현진 기자



기금 전달 후 찍은 기념 사진. 오른쪽부터 범어사 주지 수불 스님, 아름다운동행 이사장 자승 스님, 사무총장 자광 스님 순이다.

## 사회안전망, 민관 협업으로 풀어나가야

조계종복지재단, 불교사회복지포럼 개최

복지사각지대 대상자 발굴·지원에 민간의 협력이 중요시되는 가운데, 공공기관과 민간 협력 방안을 모색해보는 세미나가 마련됐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상임이사 원경)은 4월 10일 전법회관에서 '종로구 사회복지정책을 기반으로 한 민관협력 방안'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복지재단측은 "정부지원기존에 미달하는 복지사각지대에 위치한 사람들은 사회 안전망에서 제외돼 생활고로 인해 빈곤층으로 전락하고 있다"며 "각종 제도의 미비점 보완을 위해 현행 복지지원 기준 완화도 필요하지만 민관협력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포럼 개최 이유를 밝혔다.

이날 강사로 나선 이는 신승택 전(前)종로구부구청장(사진). 신 부구청장은 종로구 현황과 정책을 공유, 민관 협력 복지체계 강화에 초점을 맞춰 강의를 진행했다.

종로구민의 차별화된 복지사업이라면 교회와 종로구청이 함께하는 협의회. 15개 교회가 참여해 이웃돕기를 후원하고 있다. 기업체, 종교 단체 등에서 종로구내 1개 동과 자매결연을 맺어 저소득 가구에 대해 장학금·물품 지원을 하는 '사랑나눔 1사 1동 결연'과 쪽방 거주민 대상으로 하는 무담보 소액 대출, '해피존 사업' 등



도 있다. 다른 지자체보다 민관협력이 모범적으로 정착되고 있는 종로구가 지난 신 前 부구청장은 "현재 사업,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아이디어 공개 모집이 필요하다"며 "이외에도 사회복지법인과 지자체간 협업을 강화로 복지 수혜자를 발굴하고 정책을 공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민관 협력관계가 강화됐을 때 복지 수요조사 등을 통한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도 용이할 것으로

원경 스님은 "본 포럼을 통해 민·관이 협력하여 복지사각지대를 해결하고 국민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맞춤형 복지전달체계를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공공부문 전달체계와 종교계를 비롯한 민간 사회복지계가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기존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날 포럼에는 사회복지법인 실무자 30여명이 참석했다. 배현진 기자

## 생명나눔, 법타 스님 명예전당 헌액

4월 10일 홍보대사로 율호 스님 위촉



생명나눔 이사장 일면 스님과(가운데) 법타 스님(왼쪽), 율호 스님(오른쪽)이 장기기증 희망등록 5000명 달성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면)가 4월 10일 동국대 정각원장 법타 스님을 장기기증 명예의 전당에 헌액했다. 홍보대사로는 율호 스님을 임명했다.

법타 스님은 지난해 9월 정각원에서 열린 장기기증 캠페인에서 장기기증희망등록을 한 후 동국대 석림회 스님과 동국대 교직원 및 학생 100여 명을 추천해 명예의

전당 12호로 이름을 올리게 됐다. 명예의 전당은 100명에게 장기기증희망등록 추천을 한 공로로 수여된다.

법타 스님은 "금생에 여러 상을 받아 봤지만 오늘 받은 이 훈장이야말로 가장 명예로운 영광"이라며 "보시를 강조한 부처님 말씀처럼 뜻 생명의 평화와 안온, 행복을 위해 하는 장기기증이야말로 보시바라밀을 성취하는 거룩한 행위다. 더 많은 스님들이 동참해 더 많은 동국인들이 부처님의 자비를 실천하도록 장기기증을 알리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방송과 출판물 통해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율호 스님의 홍보대사 위촉식도 이어졌다. 율호 스님은 "법문을 할 때 법보시는 부처가 되는 비결이요, 재보시는 부자가 되는 비결이라고 신도들에게 설명한다"며 "몸을 보시하는 생명나눔은 자연스레 몸에 대한 애착을 내려놓게 만드는 만큼 내생에 극락왕생하도록 도와주는 승천

비결이 될 것"이라고 장기기증의 의미를 표현했다. 덧붙여 "솔선수범 하신 법타 스님을 본받아 생명나눔 홍보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율호 스님은 홍보대사 위촉식 이전에 장기기증 희망등록을 하기도 했다.

생명나눔실천본부는 설립 20주년을 맞아 '스님 1000명 모시기'와 '장기기증 희망등록 5000명 달성'을 위해 스님 홍보대사를 릴레이로 위촉하고 있다.

율호 스님은 마가 스님, 정목 스님에 이은 세 번째 홍보대사다. 법문과 캠페인을 통해 장기기증을 적극적으로 홍보 중인 마가 스님의 추천으로 홍보대사 수락을 결심했다는 후문이다.

한편 생명나눔실천본부는 설립 20주년 맞이 장기기증 희망등록 5000명 달성이 목표에 다가서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장기기증 희망 등록 스님은 250명을 포함, 올해 장기기증 희망등록자는 1595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00명가량 초과한 수치다. 배현진 기자

## 선암복지관, 시니어 기자단 발족

지역 소식 전할 계획

선암호수노인복지관(관장 종선) 시니어 홍보단 '소리울'이 4월 9일 발족했다.

소리울 홍보단은 만 60세 이상 어르신으로 구성돼 복지관 블로그에 지역관련 소식을 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어르신들은 인터넷 활용 및 사진 촬영 등 관련 교육도 수료했다.

이날 발족식에 참여한 이장수(67세, 아음동) 어르신은 "선암호수노인복지관에서 노인들을 위해 좋은 기회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다"며 "원 닿는대까지 노력해 좋은 사진과 소식들로 알찬 소식을 전하겠다"고 참여소감을 밝혔다.

선암호수노인복지관장 종선 스님은 "앞으로도 관원 어르신의 욕구를 반영하여 다양하고 수준 높은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개발·운영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배현진 기자

불교에 관심있는 외국인을 위한 영문 한국불교 안내서!

## An Encyclopedia of Korean Buddhism

영어에 익숙한 젊은이들을 위한 한국불교 백과사전!

외국인의 눈높이에 맞춘 표제어와 알기 쉬운 설명, 이해를 돕는 다양한 사진은 한국불교의 전통과 문화를 이해하는 길잡이 역할을 한다.

헤원·Mason/국판양장컬러/656쪽/값 35,000원

지금 나의 삶이 영원을 노래할 수 있다면

법화행자로 살면 삶이 행복하다!

경전 중의 제일이라는 『법화경』을 진실되게 공부하고, 바른 믿음과 실천으로 오늘보다는 내일이, 내일보다는 그 다음날이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길을 제시!

쉽고 평이한 언어로 풀어가면서도 핵심을 놓치지 않는 스님만의 화법으로 불자들을 일깨워 참된 불교 수행의 길로 안내!

“일심으로 부처님에게 향한다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 없다. 믿고 의지하고 행하고 이해하는 공부를 하면, 그 속에서 불법의 진리가 생활 속에 들어와서 상락아정의 생활이 된다.”

일우 지음/신국판/336쪽/값 15,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동 4가 270번지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 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